

금주의 법구-〈법구경〉  
100년을 살자라도 행실이 나쁘고  
마음이 어지럽다면 마음이 고요를 지니고  
덕행을 쌓은 하루만 못하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4월 12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1097호 2016년 5월 18일 수요일

## 대중 '직선제' 선호 고민은 '지속 중'

### 추진위, 12일 종합 발표... 60.7% 직선제 찬성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사부대중공사 투표 결과

선출제도 문항	투표수(명)	지지율(%)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직선제	325	60.7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교구중회가 뽑는 종단쇄신위원회안	88	16.4
투표인단이 3인을 선출하고 중정이 추천하는 연화미소법	50	9.3
출가대중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	37	6.9
기타(추대제 등)	27	5.0
질 모르겠다	8	1.5

차기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 방식에 대한 대중들의 직선제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부대중100인대중공사추진위(공동위원회)는 5월 12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사부대중공사에서의 현장 즉석투표 결과를 종합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대중공사 참가자 10명 중 6명이 차기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방식으로 직선제를 선호했다.

대중공사추진위는 4월 9일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대전·충청, 호남, 서울·경기 등 총 7번의 사부대중공사를 진행했다. 대중공사에서는 리모컨 현장투표로 총무원장 선출제도의 선호를 물었으며 비구·비구니 411명, 재가신도 315명 등 총 726명이 참여했다. 바람직한 제도에 대한 현장투표에서 직선제 60.7%, 종단쇄신위원회안 16.4%, 연화미소법 9.3% 순으로 직선제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 자칫 금권선거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종교다운 선출제도 고민 이어져  
이와 함께 '종교다운 선출제도'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고 있다. 대중공사에서는 합의제, 추대제, 추천제 등이 제시됐지만 직선제에 대한 압도적인 선호로 인해 논의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대전충청지역 대중공사에서 교구본사 주지 B스님은 "23번 선거를 했다. 계속 선거를 하면서 승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남을 느꼈다"고 발언했다.

이와 함께 중회의원 C스님은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세우고, 표포이에 나서는

중정 추천 '연화미소법' 9.3%뿐

18일 2차 중앙대중공사서 토론

6월 21일 임시총회에 상정 예정

공명선거 열망이 직선제 선호로 변한?

대중공사에서는 현행제도의 문제인식과 방향으로 금권선거와 흑색비방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풍토 개선이 꼽혔다.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금권·과열 선거'를 문제로 지적하는 응답이 51.2%에 달했다. 담합과 야합이 20.3%, 사부대중 참여미흡은 14.9%, 참정권 제한은 10.9%였다.

직선제에 대한 높은 선호 이면에는 늘어난 유권자로 인해 그동안의 선거 병폐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기대감이 있다. 집행위원장 일각 스님은 "공정선거에 대한 열망이 직선제 선호로 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이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경기지역 대중공사에서 A불자는 "유권자들의 의식이 성숙할 때 직선제는 여법하게 진행된

모습이 과연 종교인다운 모습인지를 되돌아 봐야 한다"고 했다. 출마자 재산 공개, 선거법 위반처벌 등 선거 자체가 불교 세속화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비구니 스님 참정권 확대는 과제로

지역별 대중공사에서는 차기 총무원장 선거에서의 우선가치로 '출가 승단의 평등한 참정권 확보'가 44%의 지지를 받았다. '금권선거 등 선거과열 방지'는 23% 밖에 득표하지 못했다. 비구 스님의 참정권 확보 인식이 컸음도 드러났다. 한편 대중공사는 5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잠실 불광사에서 2차 중앙대중공사를 열고 주제별 논의 결과까지 포함해 최종안을 중회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의 공은 6월 21일 예정인 중앙총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노덕현 기자



부처님오신날 조계사는 연화장세계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인 5월 14일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2만여 개 사찰에서 봉축법요식이 일제히 열렸다.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는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과 원로회의 의장 밀은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1만여 대중이 참석했다. 국적과 인종, 이념을 떠나 봉축을 위해 참석한 이웃종교인, 정치인, 외국인 등은 연화장세계를 연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5월 14일 부처님오신날... 전국 2만여 사찰서 법요식

진제 중정 스님 "온갖 병통 치유의 길은 참나 깨닫는 것"

조계사 봉축법요식, 정관계등 사부대중 1만여명 참석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인 5월 14일 전국 2만여 곳의 사찰에서는 봉축법요식이 일제히 열렸다. 특히 이날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봉축법요식에는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과 원로회의 의장 밀은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명주 총무, 정의화 국회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

법요식은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 헌양, 헌다에 이어 '불자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 수상자로는 허영범 대구지방경찰청장, 국악인 남상일, 체조선수 양학선이 선정됐다. 특히 헌화 의식에는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과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변호사, 아르바이트 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은 봉축 법어를 통해 "생명경시와 물질 숭배를 중시여기는 이 깊은 병통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

은 일념삼매에 들어 참나를 깨닫는 것"이라며 "우주만유의 본질인 생명의 존엄성과 우주의 원리를 자각해 일체중생의 비애와 고뇌가 없는 영원한 생명의 실상(實相)을 현실세계에서 수용해 대자유해탈(大自由解脫)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봉축사에서 "부처님께서는 인류와 민족의 번영, 남북의 화해와 평화공존,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웃과 함께하는 동체대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라며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부처님이다. 절망은 희망으로, 갈등은 화합으로, 불신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는 밝은 공동체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법요식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령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부처님께서는 행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마음속 연등으로 불을 밝히고 지혜광명으로 우리 사회를 자비와 소망이 넘치는 사회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이기홍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의 발원문도 발표했다. 이기홍회장은 "거룩하신 부처님 앞으로 우리들은 불자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불교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며 이웃과 사회를 위한 무애행을 실천하는 진정한 불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이웃종교들도 봉축 메시지 잇달아 전해

로마 교황청·NCKK 등 '자비' 강조

5월 14일 불기2560년 부처님오신날, 많은 이웃종교에서도 이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불자들에게 전해 훈훈함을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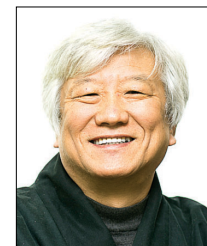
로마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의장 장루이토랑 추기경)는 "이날은 부다의 탄생과 대가, 임멸을 기념하는 날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정과 국가에 평화와 안녕이 함께하길 빈다"고 기원했다. 이어 "우리는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

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영감을 받아 이 글을 쓴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불교도선언을 통해 불자들은 환경 악화에 우려를 표했다. 인간의 탐욕, 불안, 오만, 무지로 표현되는 자아위기가 있다는 공통인식을 보여준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구를 구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중생 구제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



염수정 추기경



김명주 목사

님의 자비가 널리 퍼져 좋은 열매가 맺어지길 기원한다"며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비와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이 울려 퍼져 평화로운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명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총무도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해탈의 길을 밝혀줬다"며 "어느 때보다 부처님의 자비가 필요한 시기다. 불자와 그리스도인의 노력이 어우러진다면 아픔 속에 처한 이웃을 구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정희 천도교 교령은 "예부터 불국토를 자부해온 우리나라의 만사, 만물, 만인이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선한 용기와 은혜로운 자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은 "부처님의 큰 덕이 온 누리에 펼쳐져 통일과 평화와 앞당겨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 석가를 품은 53見 본문 중에서

제 2見 평은 초대장

세상 사람들은 수시로 일으키는 번뇌와 수시로 변하는 마음과 식(識)의 종자가 일으키는 알음알이와 업(業)의 얽힘과 파장이 출렁거리며 스스로 장애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병과 재액을 일으켰다는 사실조차 업에 가려져서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함은 고통의 연속이요  
깨달음은 화택을 여윈 평온이다.

이 평온은  
<나> 또한 <세상>을 바꾸는 힘이여

온갖 천상계의 복락과 법열을 누리며  
평온축계에 출입할 수 있는  
석가세존의 불가사의한 지혜 초대장이  
될 것이다.

<석가를 품은 53見>저자  
화엄경 강원/강주  
眞歸  
두손모음